

군인끼리 오인사격으로 숨진 대위 '전사' 함께 사망한 중사는 '폭도의 흉탄에 순직'

5·18 총정작전 포상 계엄군 사망자 22명 공적 살펴보니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간 오인 사격 등으로 숨진 계엄군들이 포상을 받을 당시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사자 등록은 계엄군이 진압할 당시 숨졌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적군과의 전투 중 순국했다는 법적 의의를 부여하는 행정 행위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인사법'에서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를 엄연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국회보존자료 '총정작전 유공 포상'에 따르면 전투원 신분부는 5·18 직후인 1980년 6월 광주 투입 계엄군 79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중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부'에 이름이 새겨진 계엄군 사망자는 22명으로 각각 화랑무공훈장(4급, 5명), 인헌무공훈장

공수단 장갑차 깔려 숨진 일병 '폭도 차량 치어 순직'으로 등급

(5급, 6명), 무공포상(10명), 보국포장(1명) 등을 받았다.

공적 내용을 살펴보면 1980년 5월 24일 송암동에서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와의 오인사격 때 숨진 11공수여단 소속 차모 대위는 '총정작전에 참가하여 사태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하여 추서함(광주소요)'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상이 여부'란에는 전사자임을 명백히 한 '전사 80. 5. 24'로 적혀 있으며, 비교란에는 '보병학교 오인사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함께 사망한 같은 소속 박모 중사의 공적은 '총정작전에 참가하여 5.24일

폭도의 흉탄에 순직', 전교사 소속 이모 하사는 '총정작전에 참가하여 11공수대장과 에이피시(APC) 장갑차에 동승하여 작전 임무수행 중 광주시 송암도에서 폭도들을 제압 전진 중 90밀리 무반동총에 저격 당해 장렬히 전사'로 적혀 있다.

송암동 오인사격 때 숨진 계엄군 9명 모두 공적 내용이 비슷하고, '상이 여부'란과 비교란도 차 대위와 똑같다.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 집단 발포 직전 차량에 깔려 숨진 권모 일병의 경우 '총정작전에 참가하여 5월 21일 광주 폭도들이 차량을 몰아오는 것을 보고 동료들을 피하게 하고 본인은 폭도차량에 치어 순직'으로 기록되어 있다. 권 일병은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시민군 차량이 아닌 11공수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사 방위병이었던 손모 일병의 공적 내용은 '광주 총정작전에 참가하여 야간

경계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로 출근하다가 폭도의 흉탄에 순직한 자임'이다. 손 일병은 공적 내용과 달리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일병의 검시 내용에는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복부 관통'으로 나와있고, 사망 일시·장소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화정동이다. 5·18 당시 계엄군은 M-16, 시민군은 M-1, 칼빈 소총을 들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들의 구분)에 의하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신분부는 오인 사격 등으로 사망한 계엄군들을 모두 전사자로 등갑시켜 예우하고 포상했다.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충봉아부패병 전염 발동 소각 30일 광주 북구청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쫄벌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남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한 금곡동 쫄벌농가 봉군장에서 벌통 100여개를 소각하고 있다. 남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오염된 사료나 꿀을 통해 감염되며 병에 걸린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제39주년 5·18 기념행사

전국 13개 지자체 공동 추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5·18기념재단은 "지역별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광역협의회'와 '2019 전국시민사회단체 5·18정신계승 공동추진사업' 선정 단체들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기존의 서울, 부산, 강원(춘천·원주), 대구, 전북, 대전·충남 등 5·18 광역협의회와 경기도(성남·수원·안산·안양·군포·의왕), 충북지역 5월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념식 등을 공동추진한다.

또한 재단은 '5·18정신계승 공동추진사업'을 공모해 광주지역 6개 사업 이외에 전국에 걸쳐 21개 사업을 선정해 지난 3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다.

광주에서도 5월 한달 동안 공식 기념행사와 전야제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기념 행사가 열린다.

오는 2일 5·18 당시 서석고 3년생 학생들의 체험담이 담긴 책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30일까지 드라마 콘서트 '하철선, 오월을 노래하다' 공연이 펼쳐진다.

일본 관광객들이 5·18 사적지를 답사하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광주 5·18 평화연수'도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5월 30일까지 전시회와 시상식을 연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해질 19:18, 달뜨기 03:58, 달지기 15:43

마스크 준비하세요

구름 많고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구름 많음	11/21	보성	구름 많음	8/21
목포	구름 많음	11/18	순천	구름 많음	13/24
여수	구름 많음	14/22	영광	구름 많음	9/17
나주	구름 많음	8/20	진도	구름 많음	10/18
완도	구름 많음	12/21	전주	구름 많음	10/20
구례	구름 많음	11/22	군산	구름 많음	10/18
강진	구름 많음	10/20	남원	구름 많음	10/21
해남	구름 많음	9/19	축산도	구름 많음	11/17
장성	구름 많음	8/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 생활지수

보통	식중독
높음	자외선
나쁨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5:14	12:08
17:45	--:--	
여수	00:49	07:18
	13:22	19:28

◇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	☀	☀	☁	☁	☀	☀
9/22	11/25	12/26	12/25	13/24	13/23	12/22

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2명 징계

정직 2개월·직급 강등 조치

광주지역 일선 학교 공무원들이 성·금품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3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광주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말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시연하던 중 해당 유치원 원장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

사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와 징계위원회의를 거쳐 불필요한 접촉으로 판단, 경찰에도 A씨를 고발했다.

또 인사위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고등학교 8급 직원 C씨를 9급으로 강등했다. C씨가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고, 피교육청의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대병원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금상

장애인가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대병원을 '2019년 장애인고용신뢰기업(True company상)' 금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신뢰기업(True company상)'은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3년 협약 전까지 26명이었던 장애인고용 인원을 2018년까지 66명으로 증원,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13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2021학년도 대입 77% 수시모집...정시 찢끔 증원

전체 모집정원 419명 줄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정시모집 비율은 소폭 증가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도 선발인원이 늘었다. 지난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인원은 34만7477명으로, 모집정원이 전년보다 419명 감소했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3%로 8만737명을, 수시모집은 77%인 26만7374명을 선발한다.

2019학년도 23.8%였던 정시비율은 2020학년도 22.7%로 떨어졌다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0.3%포인트 상승했다.

특별전형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과 비율도 증가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1279명(0.4%포인트) 증가한 4만7606명이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 역시 전년보다 394명(0.2%포인트) 늘어난 1만6521명으로 대학수도 83개에서 86개교로 늘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